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인식 유형

강운선*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 유형을 분석하고, 외국인의 접촉경험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대학생들의 인식 유형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와 면대면 설문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군집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외국인 접촉경험을 외국인 친구의 유무, 유학생과의 수업경험, 해외방문경험, 그리고 교환학생경험으로 구분하였으며, 연령과 성별 변수를 통제한 후에 접촉경험에 따른 차별적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제한적 수용형(25%)', '수용형(15.6%)', '거부형(21.9%)', 그리고 '개인 불이익 기피형(37.5%)'의 네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외국인 친구, 유학생과의 수업경험, 해외방문경험 변인은 유학생에 대한 국내 대학생의 인식 유형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접촉 경험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 유형에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로 해석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논의를 다루었다.

주요어 한국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 접촉효과, 군집분석

1. 서론

한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수가 2016년 4월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지 5개월만인 2016년 9월 말에는 12만2천82명에 이르렀다. 이것은 8월 11만7천565명보다는 3.8%, 2015년 9월 10만2천117명에 비해서는 19.6% 늘어난 수

* 대구대, 일반사회교육학,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wskang@daegu.ac.kr

치다.¹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이 7만508명(57.8%)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만3천4명(10.7%), 몽골 5천814명(4.8%), 일본 2천773명(2.3%), 우즈베키스탄 2천232명(1.8%), 미국 1천672명(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유치방안을 다룬 연구(양만기, 2013; 엄미정 외, 2012; 이순철, 2015; 주현준, 2007; 홍준현, 2014 등),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과 학습 전략을 다룬 연구(강현민 외, 2014; 권양이, 2008; 권은영, 2013; 김문준 외, 2010; 배상훈 외, 2013; 유해준, 2015; 홍효정 외, 2013 등), 유학생들의 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김현진·김영주, 2015; 권양이, 2008; 나임순, 2006; 백지숙, 2013; 백지숙, 2011; 양진숙, 2016; 오세경 외, 2015; 주동범·김향화, 2013 등), 유학생과 한국 학생과의 교우관계를 분석한 연구(윤영주·장소영, 2016; 전재은, 장나영, 2012 등),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임희진 외, 2015)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의 대부분은 외국인 유학생을 연구대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학업 문제나 문화 부적응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보다 나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 정책이나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을 도와주고, 더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를 갖는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에 흥미를 갖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함께 학습하는 국내학생들을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구조화된 면담 방법을 적용하여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

1 이 통계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월별 통계에 근거한 것임

학생 유입에 대한 국내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임희진 외(2015)의 연구에서 국내 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배경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가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동료로 인식하기보다는 부담을 갖고 챙겨주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 기숙사, 장학금 등과 관련해서도 유학생들이 유리한 지위를 누리며, 그로 인해 국내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입학 전형, 장학금, 기숙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희소가치라고 할 수 있다. 임희진 외(2015)의 연구결과가 소수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면담의 방법을 활용하여 얻어진 것이지만, 희소가치의 배분과 관련하여 국내 학생 중의 일부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두 집단이 동일한 자원을 성취하기를 원할 때 두 집단 간에는 갈등과 편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원을 둘러싸고 집단 간에 적대감이 형성된 후에는 일상적 관계로 회복되기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분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Sherif, 1966).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에 관한 Sherif가 주장이나 임희진 외(2015)가 수행한 연구결과를 참조할 때 희소가치의 배분 과정에서 국내 대학생들이 유학생의 유입으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국내 대학생들이 유학생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유학생들과 반목하거나 심지어는 그들을 배척하는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하여 국내 대학생들 중에는 이를 반기는 입장도 있지만,² 일각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포함된 모듈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이를 불편하게 느끼는 학생들도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학생들도 보고되고 있

2 어떤 학교에서는 '영어 라운지'를 개설하고 있으며, 주문하거나 대화할 때 영어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대학생들이 영어 라운지에 외국인 유학생과 '프리 토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국내 학생들은 이곳을 즐겨 찾는다. 아울러 유학생 문화교류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들도 외국인 유학생 유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http://www.studyinkorea.go.kr/ko/confirm/main.do>).

다.³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국내 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런 감정이나 인식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없다.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국내 대학생들이 자신들에게 편견을 갖고 있다고 느낀다면, 유학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중도탈락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아울러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예비유학생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가정할 때, 국내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공간으로 유학생들이 유입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유학생들에 대한 국내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질적인 연구방법으로 사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유학생에 대한 국내 학생들의 인식 유형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선행연구(임희진 외, 2015)에서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수업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접촉 후에도 심리적 불편함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집단 간 접촉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접촉 가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국내 대학생들의 유학생과의 수업 경험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도 단서를 얻을 수 있는 선행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국내 대학생들의 인

3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에 대한 인터뷰에서 여대생 홍모(23)씨는 영어 전공수업을 수강중이다. 전체 수강생 56명 중에서 8명이 외국인 유학생인데, 홍씨의 모둠에는 덴마크에서 온 유학생이 포함되어 있다. “네가 영어를 좀 하니까 저 친구 통역 좀 해줘.” “네가 해, 난 영어 잘 못해.” 첫 모임 내내 학생들은 한국말을 못하는 덴마크 유학생과의 소통 문제로 애를 먹었다. 결국 한 친구가 등 떠밀려 통역사 역할을 했으며, ‘모둠활동 참여도’가 학점에 반영되기 때문에 모둠활동에 빠지는 학생은 없었지만 소통은 원활하지 않았다. 결국 덴마크 유학생은 “I’m sorry that I can’t speak Korean well, I am a trouble to this team.”라고 말하곤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한다. 한 대학생은 “유학생들은 학점을 PASS/FAIL로 평가하거나 상대적으로 원하는 학점을 쉽게 얻을 수 있어 모둠 활동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studyinkorea.go.kr/ko/confirm/main.do>)

식 유형을 밝히고, 특징 집단과의 접촉이 그 집단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접촉 가설에 근거하여 유학생과의 수업 경험이 국내 대학생의 인식 유형에 차별적 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접촉가설에 관한 선행연구

Allport(1954)는 평등한 지위(equal status), 협동(cooperation), 공통의 목표(common goals), 사회적 권위에 의한 지지(the support of social authorities)의 네 가지의 요소⁴를 갖춘 접촉 상황에서 집단 간 접촉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접촉가설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아울러 접촉 상황이 네 가지 요소의 포섭 정도에 따라 접촉 효과는 차별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접촉가설이 주장된 후로 접촉이 민족이나 인종이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Husnu & Crisp, 2010; Nesdale and Todd, 1998; Amir, 1969; Bennett, 2007; Cook, 1984; Pettigrew, 1998; Stephan, 1987)를 비롯하여 노인과의 접촉이 노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데 효과적인지를 분석한 연구(Caspi, 1984; Abrams et al., 2008), 상이한 성적 취향에 대한 편견을 다룬 연구(Herek and Capitanio, 1996; Turner et al., 2007), 거주공간에 따른 편견을 다룬 연구(Lee et al., 2004) 등 여러 영역에서 접촉 효과를 검증하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접촉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Hamberger and Hewstone, 1997; Hewstone and Brown, 1986)도 보고되었다. 접촉 가설을 다룬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연구(Pettigrew

4. 등한 지위는 접촉 상황의 구성원들이 위계적이거나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계는 접촉 이전이나 접촉 상황 동안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협동은 구성원들이 비경쟁적인 환경에서 모두 함께 협업을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공통의 목표는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상호의존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도적 지지는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접촉을 규제하는 권위가 폐지되어야 하며, 긍정적 접촉을 지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 Tropp, 2006)에서는, 접촉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인종간 접촉은 편견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접촉 조건은 독립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매개조건들이 통합적으로 적용될 때 긍정적 효과를 얻는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국내의 한 연구(원숙연, 2016)에서도 접촉 상황이 접촉 효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검증되었다. 거주공간에 따른 접촉 효과를 검증한 이 연구에서 접촉의 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빈번한 접촉은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용산 구민들은 이주 외국인의 기여를 매우 낮게, 침해와 수용 제한은 매우 높게 인식하였으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배제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

3. 연구설계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구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학생들이 사회조사의 일환으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⁵ 조사자들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과 조사자들이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대학생들과 면대면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는 2016년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수집한 설문지 중 자료처리 과정에서 무응답 반응이 많거나 자료로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256명의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년, 외국인 유학생의 친구 여부, 외국인 유학생 친구의 국적, 해외 방문 경험, 해외 방문 국가와 방

5 설문 문항을 개발하는 과정에 학과 교수가 직접 참여하였으며, 여러 번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설문 문항을 확정하였음을 밝힌다.

문 기간, 교환학생 경험과 방문국가 및 기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	구분		빈도(명)	백분율 (%)	
성별	남성	115	44.9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우선 입사	79	36.7	
	여성	141	55.1		용이한 장학금	9	3.5	
연령	18	17	6.6	정책 인지	절대평가 적용	22	8.6	
	19	63	24.6		모름	146	57.0	
	20	49	19.1	해외 방문국	북미	22	8.6	
	21	28	10.9		유럽	19	7.4	
	22	33	12.9		오세아니아	8	3.1	
	23	36	14.1		아프리카	2	.8	
	24	11	4.3		동남아시아	31	12.1	
	25	10	3.9		서남아시아	2	.8	
	26	6	2.3		동북아시아	79	30.9	
	27	1	.4		남부아시아	2	.8	
32	1	.4	해외방문 경험 및 기간	경험없음	92	35.9		
무응답	1	.4		일주일 이내	74	28.9		
학년	1학년	98		38.3	일주일-1개월 이내	51	19.9	
	2학년	73		28.5	1개월-6개월 이내	22	8.6	
	3학년	35		13.7	6개월-1년 이내	6	2.3	
	4학년	50	19.5	1년 이상	11	4.3		
외국인 친구	없다.	193	75.4	교환학생 경험 국가	북미	3	1.2	
있다	63	24.6	유럽		2	.8		
외국인 친구의 국적	북미	5	2.0		오세아니아	1	.4	
	남미	1	.4		동남아시아	4	1.6	
	유럽	3	1.2		서남아시아	1	.4	
	오세아니아	2	.8		동북아시아	4	1.6	
	아프리카	6	2.3		교환학생 경험	경험 없음	243	94.9
	동남아시아	7	2.7			1개월-6개월 이내	4	1.6
	서남아시아	1	.4	6개월-1년 이내		6	2.3	
	동북아시아	32	12.5	1년-2년 이내		2	.8	
남부아시아	5	2.0	2년 이상	1		.4		
외국인 학생	없다.	114	44.5	있다.	142	55.5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들의 유학생에 대한 인식 유형을 밝히고, 유학생과의 접촉경험이 유학생에 대한 국내 대학생의 인식 유형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유학생에 대한 인식 유형을 도출하고, 차별적 영향을 밝히기 위한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신문 기사와 유학생들의 유입에 대한 국내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

유학생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방식과 요인들 간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방식의 하나인 배리맥스(varimax rotation)를 적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는 고유값 1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며,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의 값이 .5 이하이거나 공통성(communality)값은 .5 이하인 문항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추출된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의 내적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측정하였다.

유학생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은 4개가 추출되었으며, 네 요인의 전체 분산은 66%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다. 요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문화 역량’, ‘유학생 유치제도’, ‘수업효과’, 그리고 ‘심리적 저항’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별로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 α 값은 .87, .71, .61, .76으로, 신뢰도가 상당 수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분석방법과 자료처리도구

국내 대학생들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활용하였다.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군집을 추출하

표 2.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의 요인 분석

	요인1 다문화 역량	요인2 유학생 제도	요인3 수업 효과	요인4 심리적 저항
유학생은 내가 글로벌적 마인드를 갖는데 도움을 준다.	0.87	-0.02	0.03	-0.07
유학생은 다른 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을 준다.	0.85	-0.13	0.04	-0.03
유학생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다.	0.73	0.03	-0.05	-0.13
유학생은 나의 여학생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0.67	-0.04	0.27	-0.17
유학생은 일반 학생과 동일 기준으로 기숙사에 입사해야 한다.	-0.01	0.88	0.03	-0.03
유학생은 일반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	-0.11	0.84	0.06	0.10
유학생이 일반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성적을 받아야 한다.	-0.02	0.80	-0.04	-0.01
유학생과 모동별 활동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0.13	-0.06	0.87	0.02
유학생과 수업을 들으면 수업의 질이 낮아진다.	0.05	-0.04	0.86	0.19
유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럽다.	-0.17	0.04	0.21	0.75
유학생으로 인해 학습내용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0.04	-0.08	-0.38	0.66
유학생을 위한 별도의 수업을 개설해야 한다.	-0.18	0.08	0.15	0.61
Eigen Value	2.56	2.15	1.77	1.47
% 분산	21.30	17.93	14.78	12.22
누적 분산	21.30	39.23	54.00	66.23
Cronbach α	.87	.71	.61	.76

기 위한 방법에는 계층적 군집화 방법과 비계층적 군집화 방법이 있다. 사례 수가 많을 경우에는 계층적 군집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계층적 방법에 속하는 K-means 군집방법을 활용하였다. 성별, 연령, 해외방문경험, 외국인 유학생 친구 유무, 외국인 유학생과의 수업 경험 등의 변인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 유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빈도분석,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요인분석, 외국 유학생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유형을 밝히기 위한 군집분석, 그리고 외국인 접촉경험이 외국 유학생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유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IBM SPSS Ver.23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대학생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 유형

국내 대학생들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유학생에 대한 인식 요인을 4개로 분류하고, 각 문항을 표준화한 후에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2부터 5까지 집단 수를 입력하여 분류한 결과 표 3과 같이 4개의 세부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한 군집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Wilks 람다 값의 유의도가 .00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집단을 4개의 세부 집단으로 분류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군집1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수업에 대해서는 유학생들과 수업을 들으면 수업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모듈별 수업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수업에 대한 심리적 저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유학생 유치제도'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군집1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면서도 수업의 질 하락을 부분적으로 우려하는 집단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국내 학생들에게 역차별로 인식할 경우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군집1을 '제한적 수용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2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유학생들과 수업을 들으면 수업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모듈별 수업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수업에 대한 심리적 저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1과는 달리 군집2는 '유학생 유치제도'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

을 갖는 집단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반영하여 군집2를 ‘수용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3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문화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수업에 대해서 유학생들과 수업을 들으면 수업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을 상당정도로 우려하고 있으나, 모둠별 수업으로 인한 피해는 걱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수업에 대한 심리적 저항도 상당 수준에 이르는 집단으로 나타

표 3.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군집분석

	1	2	3	4	F
유학생들은 내가 글로벌적 마인드를 갖는데 도움을 준다.	0.67	1.03	-0.77	-0.43	76.39***
유학생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을 준다.	0.47	1.11	-0.61	-0.42	54.99***
유학생들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다.	0.48	0.72	-0.51	-0.32	26.15***
유학생들은 나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0.66	0.73	-0.44	-0.49	40.37***
유학생들이 일반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성적을 받아야 한다.	0.60	-1.05	-0.02	0.04	30.32***
유학생들은 일반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	0.56	-1.08	0.23	-0.06	31.98***
학생들이 일반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를 해야 한다.	0.62	-1.04	0.10	-0.04	30.99***
유학생들과 수업을 들으면 수업의 질이 낮아진다.	0.25	0.31	0.95	-0.85	83.58***
유학생들과 모둠별 활동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0.61	-0.18	-0.77	0.94	106.90***
유학생들로 인해 수업내용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0.46	-0.01	0.15	0.22	6.86***
유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럽다.	-0.23	-0.34	0.65	-0.08	12.42***
유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수업을 개설해야 한다.	-0.35	-0.35	0.78	-0.08	19.38***
	제한적 수용형 25%	수용형 15.6%	거부형 21.9%	개인 불이익 피해 37.5%	

났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장학금과 기숙사를 배정받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군집3을 ‘거부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4는 군집3과 유사하게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문화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수업에 대해서는 유학생들과 수업을 들으면 수업의 질이 낮아지지는 않지만, 모둠별 수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을 보인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과 수업할 경우, 수업내용을 설명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을 취하지만, 대체로 심리적 저항은 약한 특성을 보인다. 아울러 성적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상대평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장학금과 기숙사 배정을 국내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관점을 갖는다.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군집4를 ‘개인 불이익 기피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군집에 속하는 비율은 25%, 15.6%, 21.9%, 37.5%의 분포로 나타났다.

2) 유학생 접촉경험에 따른 인식 유형의 차이

유학생과의 수업경험에 따른 인식 유형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연령, 성별, 외국인 친구 유무, 해외 방문경험, 그리고 교환학생 경험 유무 등의 변수를 통제하고 ‘거부형’ 집단을 기준변수로 설정하였다. 해외방문경험의 경우, 방문기간의 분포를 고려하여 경험이 없는 집단, 1개월 미만 집단, 그리고 1개월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대학생들의 인식 유형을 종속변수로 연령, 성별, 외국인 친구, 외국인 유학생과의 수업 경험, 해외방문경험, 그리고 교환학생경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표 5와 같다.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75% 정도로 나타났으며, 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의 검증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의 수업 경험, 외국인 친구, 그리고 해외방문경험은 유의미하지

만, 연령, 성별, 교환학생경험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유학생과의 수업경험이 있는 대학생보다 유학생과의 수업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제한적 수용형'에 속할 확률은 11배, '수용형'에 속할 확률은 17배, '개인 불이익 기피형'에 속할 확률은 1500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친구가 있는 대학생과 비교할 때, 외국인 친구가 없는 대학생이 '제한적 수용형'에 속할 확률은 69%, '수용형'에 속할 확률은 32% 높지만, '개인 불이익 기피형'에 속할 확률은 80% 낮게 나타났다. 해외방문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기준변수로 할 때, 1개월 미만으로 해외 방문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제한

표 4.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우도비 검정)

	-2 로그 우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233.826	0.00	0	
연령	237.89	4.07	3	.254
성별	239.52	5.69	3	.127
외국인 친구 유무	243.77	9.94	3	.019
유학생과의 수업 경험 유무	410.00	176.17	3	.000
해외 방문 경험	339.75	105.92	6	.000
교환학생 경험 유무	234.52	0.70	3	.874

표 5.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모수 추정값)

	1		2		4	
	B	Exp(B)	B	Exp(B)	B	Exp(B)
절편	-4.06		-12.76		-1.85	
유학생과의 수업경험(없음=1)	2.42	11.29	2.83	16.89	7.34	1538.26
연령	0.06	1.06	0.03	1.03	0.00	1.00
성별(남자=1)	-0.49	0.61	0.44	1.56	0.77	2.15
외국인 친구(없음=1)	0.53	1.69	0.28	1.32	-1.56	0.21
해외방문경험(1개월 미만=1)	3.49	32.89	-3.46	0.03	0.45	1.56
해외방문경험(1개월 이상=1)	3.14	23.13	-17.57	0.00	-0.97	0.38
교환학생경험(없음=1)	-0.48	0.62	12.26	211271.01	0.06	1.07

Nagelkerke R^2 .75 -2LL 233.8 모형 χ^2 (df) 308.39(21) Sig. .000

적 수용형'에 속할 확률은 32배, '개인 불이익 기피형'에 속할 확률은 56% 높지만, '수용형'에 속할 확률은 92% 낮게 나타났다. 해외방문경험이 없는 대학생보다 1개월 이상 해외방문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제한적 수용형'에 속할 확률은 23배 높지만, '수용형'과 '개인 불이익 기피형'에 속할 확률은 낮게 나타났다.

5.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 유형을 분석하고, 유학생과의 수업경험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 유형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대학생들의 인식은 '제한적 수용형(25%)', '수용형(15.6%)', '거부형(21.9%)', 그리고 '개인 불이익 기피형(37.5%)'의 네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유학생과의 수업경험은 경험이 없는 집단이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하여 '제한적 수용형', '수용형', 그리고 '개인 불이익 기피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인식 유형과 관련하여 '제한적 수용형'을 포함해도 외국인 유학생을 수용하는 인식을 갖는 집단은 50% 미만에 불과하다. 아울러 모둠활동 과정에서 유학생들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우려하는 '개인불이익 기피형'도 38% 정도를 차지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둠 활동은 국내 대학생들과 유학생들의 직접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내 대학생들이 유학생의 유입을 자신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학생들의 증가로 국내 대학생들이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경쟁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국내 대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결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유학생과의 수업경험이 유학생들에 대한 인식 유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구성원들 간의 접촉이 다른 집단에 대

한 편견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선행연구(원숙연, 2016; Hamberger and Hewstone, 1997; Hewstone and Brown, 1986)와 유사하다. 본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국내 대학생들과 유학생들의 접촉 상황이 평등한 지위(equal status), 협동(cooperation), 공통의 목표(common goals), 사회적 권위에 의한 지지(the support of social authorities)의 네 가지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 비하여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양적으로는 매우 적은 수를 차지한다. 모둠별 활동에서 유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동등한 지위에서의 만남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협동도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더욱이 기숙사 배정과 장학금 수혜 등에서 희소 가치를 둘러싸고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학생과의 접촉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의 증가로 국내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을 늘리고,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유학생들에 대한 국내 대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유학생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유학생들에 대하여 국내 대학생들이 갖는 부정적인 인식을 유학생들이 느낀다면 이것은 유학생들을 유치하려는 정책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우리나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 겪고 있는 문제이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유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유인정책도 의미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대학생들의 인식도 유학생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내 대학생들이 유학생들에 대하여 느끼는 부정적 태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주류집단의 인식을 조사하거나 인식 유형을 밝힌 연구는 상당 정도로 축적되어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생들의 인식 유형을 분석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생에 대한 인식 유형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접촉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 대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접촉 상황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가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연구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류집단의 인식 유형을 분석하고, 접촉 가설의 성립 조건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갖지만 표집과 관련하여 보완해야 할 한계도 있다. 본 연구가 특정 지역에 편중하여 편의표집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 앞으로 확률표집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대학생들의 인식을 유형화하고 변수의 차별적 영향을 검증한다면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방법을 구안하는 데 더욱 의미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민·니고라혼·홍유나, 2014,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 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0(4), 215-240.
- 권양이, 2008,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초기 적응에 관한 질적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4(1), 301-333.
- 권은영, 2013, 외국인 유학생 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 *교양교육연구*, 7(2), 373-398.
- 김문준·이철성·김형곤·김지형·이훈병, 2010,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문화연구*, 16(1), 113-134.
- 김세나, 2014, 지역대학 유학생 만족도 확 높여야, *대경CEO Briefing* 대구경북연구원, 387.
- 김현진·김영주, 2014,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전략과 사회적 거리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응용 언어학*, 30(2), 127-154.
- 민귀식, 2013, 재한중국인유학생현황과 한국생활 적응 및 갈등, *한중 Zine INChinaBrief*

246, 인천발전연구원.

- 박은경, 2011,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1(2), 113-139.
- 배상훈·홍지인·송유유, 2013, 중국인 유학생의 학습참여(Student Engagement) 실태 : 한국인 대학생 집단과 비교, *비교교육연구*, 23(4), 59-82.
- 양만기, 2013, 중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및 확대 방안: 제주지역 대학의 유학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중국인문과학*, 54, 439-472.
- 엄미정·이운지·박동오·김도훈, 2012, 이공계 분야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현황과 유치방안, *정책연구* 2012-25, 1-136
- 오세경·김미순·백보예바·아이굴, 2015,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을 위한 여가 경험의 의미, *여가학연구*, 13(4), 79-99.
- 원숙연, 2016, 반(Anti)-다문화인식의 본질과 정책적 대응: 통합적 문화적응모형을 향하여 2016년 제1차 다문화가족포럼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 75-104
- 유해준, 2015,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 교양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사고와표현*, 8(1), 73-105.
- 윤영주·장소영, 2016, 베트남 유학생의 교우관계 갈등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인문사회* 21, 7(2), 399-415
- 이순철, 2015,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 연구 : 재미교포 및 중국 유학 한국인 학생 중심으로, *국제경영논집*, 28, 5-25.
- 임희진·김제희·정소현·정하영·김현성, 2015, 캠퍼스 국제화에 대한 국내 학생들의 인식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1), 243-270.
- 전재은·장나영, 2012, 니하오?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학생과의 교우관계 : 중국인 유학생의 경험과 인식, *한국교육학연구*, 18(1), 303-326.
- 주동범·김향화, 2013, 국내 외국인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교육연구*, 23(1), 123-145.
- 주현준, 2007,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요구 분석 : AHP 기법을 이용한 국립 S대학 사례 연구, *교육학연구*, 45(3), 83-106.
- 홍효정·현승환·정순여·정창원, 2013,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학습전략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사례 연구, *교양교육연구*, 7(6), 561-587.
- Abrams, Dominic, Richard J. and Crisp Sibila Marques, 2008, Threat inoculation: Experienced and Imagined intergenerational contact prevent stereotype threat effects on older peoples math performance. *Psychology and Aging*, 23 (4), 934-939.
- Amir, Yehuda, 1969, Contact hypothesis in ethnic rel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71, 319-342.

- Dixon, John, Kevin Durrheim and Colin Tredoux, 2005, Beyond the optimal contact strategy: A reality check for the contact hypothesis. *American Psychologist*, Vol. 60 No. 7, 697-711.
- Herek, Gregory M. and Jhon P. Capitanio, 1996, "Some of my Best Friends": Intergroup Contact, Concealable Stigma, and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Gay Men and Lesbia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412-24.
- Hewstone, Miles and Rupert Brown, 1986, *Contact and Conflict in Intergroup Encounters*, Cambridge, MA, US: Basil Blackwell
- Husnu, Senel and Richard J. Crisp, 2010, Elaboration enhances the imagined contact effec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 943-950
- Lee, Barrett A. Chad R. Farrell, and Bruce G. Link, 2004, Revisiting the Contact Hypothesis: The Case of Public Exposure to Homelessn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 40-63.
- Pettigrew, Thomas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 (1), 65-85.
- Pettigrew, Thomas F. and Linda R. Tropp,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5), 751.
- Pettigrew, Thomas F. and Linda R. Tropp, 2008, How does intergroup contact reduce prejudice? Meta-analytic tests of three mediato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8 (6), 922-934.
- Pettigrew, Thomas F, Linda R. Tropp, Ulrich Wagner, and Oliver Christ, 2011, Recent advances in intergroup contact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3). 271-280.
- Schofield, Janet Ward, Leslie Hausmann, Feifei Ye and Rochelle L. Woods, 2010, Intergroup friendships on campus: Predicting close and casual friendships between White and African American first-year college student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3(5), 585-602.
- Sherif, Mustafafer, 1966, In *Common Predicament: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pp. 24-61.
- Wright, Daniel B., Catherine E. Boyd, and Colin G. Tredoux, 2003, Inter-racial Contact and the Own-race Bias for Face: Recognition in South Africa and England,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7, 365-373.

Types of Perception Toward Foreign Student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Woon-Sun Kang*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ypes of perception toward foreign student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to identify differential effect of learning experience with foreign students with the other demographic variables controlled on types towards perception toward foreign student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Controlled variables were age, sex, foreign friends, experience of student exchange program, and abroad experienc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256 Korean university students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K-means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ypes of perception toward foreign student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re performed in order to determine the effect of variables on types of perception toward foreign student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ly, The respondents were grouped into four types: 'the restrictly friendly attitude(25%)', 'the friendly attitude(15.6%)', 'the aversion(21.9%)' and 'the self-ishness(37.5%)'. Learning experience with foreign students, Foreign friends, and abroad experience were predictors, but experience of student exchange program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most striking finding is that there are other negative outcomes of intergroup contact.

Keywords Perception Toward Foreign Students, Korean University Students, Contact Effect, Cluster Analysi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 Daegu University, Professor, Social Studies Education, wskang@daegu.ac.kr